



국민결합·정부민원 110
부패·공약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 권익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테마기획

고충 민원

봄

ACRC NEWSLETTER
2017. Vol.52





권익은 ‘경청’입니다

작다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 하지 않기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기 위해 필요한 건,
다들 아닌 ‘관심’과 ‘경청’입니다.

살아가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 권익

 S R N
ACRC NEWSLETTER 2017. Vol.52

ACRC 풀어보기

- 이슈 돋보기 04**
제5회 국민권익의 날 현장
- ACRC Talk 08**
청렴 홍보대사가 들려주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 헤드라인 뉴스 10**
2017년 상반기 국민권익위 주요 이슈
- 국민권익위원회 부서 탐방 12**
민원정보분석과
“국민의 목소리만큼 소중한 정보는 없죠”
- 케이스 스테디 16**
인천대공원역 주변 통행로
안전대책 마련
- ACRC TOON 18**
2016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대상
- With ACRC 22**
국제반부패아카데미 탐방
- 별별 기자단 24**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발행일 2017년 3월 17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성영훈
편집인 곽형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크(주) 032-423-1988



연간 기획 ; 청렴韓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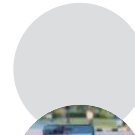
- 26 청렴韓 세상**
관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 28 청렴韓 사선**
청탁금지법과 소비 진작의 공존 방안
- 30 청렴韓 우리**
청탁금지법, ‘관계’를 재정립하다
- 32 청렴韓 변화**
통계로 보는 청탁금지법

테마 풀어보기 ; 고충민원

- 34 테마 리포트**
고충민원의 성과와 방향
- 38 테마 인포**
권의 보호를 위한 착한 공식
- 40 테마 24시**
전남 보성군 이동 신문고

세상 풀어보기

- 42 트렌드로 세상 보기**
‘포켓몬 고’ 열풍으로 보는 증강현실
- 44 심리학개론**
색채심리학, 마음의 소리
- 46 건강 100세**
대한민국 4대 중증질환 예방_암
- 48 맛·멋·락 기행**
낭만과 맛이 깃든 춘천 자전거여행
- 52 독자 마당**
독자 퀴즈와 후기



국민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지금으로부터 615년 전 2월 27일, 조선시대 태종은 억울한 백성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기념하여 지난 2013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하고 대내외에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천명하였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수상자와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글+사진, 편집실



클래식컬 크로스오버 앙상블 '컨템포디보'의 축하공연



단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다채로운 공연, 국민을 위한 바람

기념식이 열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은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오후 2시, 드디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행사가 시작됐다. 1부는 식전 기념 공연들로 채워졌다. 국악인 강선숙 명창의 시원한 장 소리에 이어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 애니메이션 공연이 펼쳐졌다. 반부패·청렴 수기 공모전 수상작인 '할머니의 500원'을 모래로 표현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클래식컬 크로스오버 앙상블 '컨템포디보'의 신나는 공연을 끝으로 1부는 마무리되었다.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 이후 지난 9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이 담긴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다. 성영훈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국민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 부문,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증진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를 빛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에 20년을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보람 있던 시간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기간이다"라며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증진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



기념사하는 성명훈 국민권익위원장



축사하는 제2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축하박수를 보내는 내빈들

한 권익구제 수단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여 이용이 보다 편리해졌다. 국민권익위 출범 이전부터 시행했던 반부패·청렴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부패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신문고와 110 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은 2007년 연간 150만 건에서 2016년 500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고충처리·행정심판 처리는 4만여 건에서 5만 7천여 건으로, 부패신고처리 사건은 2천 5백여 건에서 3천 7백여 건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힘을 것이며, 권익위의 목표인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권익 보호에 앞장선 영공의 얼굴들

이어서 지난 한해 국민의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개인에 대한 시상 이 있었다. 훈장 1점, 포장 2점을 포함하여 총 12개 단체와 97 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4점, 권익위원장 표창 68점이 수여됐다. 부패 방지 부문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는 1999년부터 반부패 시민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토론회와 칼럼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시행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증진 분야에서는 백맹기 경기도 지방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백 지방 부이사관은 경기도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찾아가는 기업예로 기동해결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근정포장을 받은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서기관은 민원처리 미흡 분야로 평가된 민원 만족도 및 민원처리기간 연장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시행하여 우수 등급으로 끌어올리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정심판 부문에서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업무 담당인 대전지방경찰청 박은경 경위가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와 언론 기고를 통해 행정심판 제도를 홍보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한편 올해 출범 10년 차를 맞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된 후 권익구제·반부패·제도개선 기능 간 상호 시너지효과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통합 전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 접수, 권익구제 요구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청렴컨설팅을 집중하여 민원평가 미흡기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능 간 벤치마킹으로 업무의 전문성도 향상되었다. 국민 입장에서 다양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는 성명훈 국민권익위원장



청렴 홍보대사가 들려주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계획

KEYWORD

안녕하세요. 청렴 홍보대사 양궁 선수 장혜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와 함께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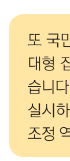


국민 체감



박상영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민 체감'입니다. 서민과 영세 기업의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일상생활 불편을 정밀 분석하여 취약 계층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권익 구제에 앞장서게 됩니다.



장혜진

또 국민 안전, 지역 주민 장기 숙원 사업 등 대형 집단 민원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소통, 조정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완하여 민원 조정 역량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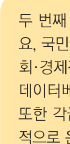


장혜진

행정심판 서비스도 더욱 편리해집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와 취약 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입증에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증거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상담과 접수 전담관이 지정된다고 하니,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반부패 청렴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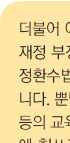
박상영

두 번째 키워드는 '반부패·청렴 정책'인데요,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법령해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장혜진

우리 사회에 얼른 청탁금지법이 정착되어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회계 관련 법령과 반발 위반 사례 교육 등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혜진

더불어 예산 낭비 유발 요인을 제거해 공공 재정 부정 청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부정환수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청렴 콘텐츠 확대 등의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 청렴 의식 함양에 힘쓰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 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등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청렴, 할 수 있다!'
청렴 홍보대사 펜싱 선수 박상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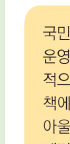


국민과의 소통



박상영

마지막 키워드는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지자체 고충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고, 국민 제안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창구 기능이 증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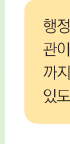
장혜진

국민권익위는 정부대표번호 '110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접수된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각급 기관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해 행정 심판 재결이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장혜진

잠깐! 간접강제제도가 무엇인가요?



장혜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을 대상 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청구인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장혜진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 권익 증진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참고하세요!

ACRC

HEADLINE
NEWS

6

S R N

ACRC NEWSLETTER 2017. Vol.52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뉴스



1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반부패 인프라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내실화 등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정책의 안착을 위해 각급 정부기관의 반부패 역할을 결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공직자 청렴의식 내면화, 민·관 반부패 협업 강화 등 정부의 반부패 역할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과테말라 대표단,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



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를 방문한 과테말라 대표단(대표 예즈라 이스라엘 오로즈코 파레데스)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등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충북 충주시 두련마을 주민들 고충민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충북 충주시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충주시 두련교차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충주시는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신호기 및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충청북도는 횡단보도 도색과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고령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어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통행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3

2017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 *

지난 2월 24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등이 후원한 '2017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이 열렸다. 페어플레이 클럽(Fair Player Club)은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산업·지역·국가별 준법 윤리경영 교육과 연구 등 기업 대상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청렴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4

제6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6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12명의 참가 학생 전원이 수료하였으며, 행정심판 사건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권익의 보호 및 구제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상민 부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국민권익을 보호·증진할 미래 법조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실습생들이 청구안을 실제로 대리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



민원정보분석과

국민의 불편함을 귀 기울여 듣고 살피는 데 여념이 없는 민원정보분석과에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바로 행운의 글귀가 담긴 포춘쿠키. 오늘날만큼 행운의 수신자가 되었지만 평소에는 국민에게 행운을 발신하기 위해 집중한다는 그들. 국민의 목소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민원분석 전문가들을 만나본다.

글. 편집실 사진. 이덕재

국민의 고충, 해결만이 답은 아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다.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를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불만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로 튀니지 등에 수출되기도 했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들은 국민권익위가 관계 부처나 기관과 함께 처리하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고충 처리에만 급급하는 것은 분명 최종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국민의 목소리만큼 소중한 정보는 없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민원정보분석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국민신문고 구축 첫해였던 2005년 접수된 민원은 약 50만 건. 당시엔 민원의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2016년엔 2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신문고 이용률은 점점 높아졌다. 민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자 발생 주기나 발생 지역, 증감률 등 유의미한 패턴들이 나타났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정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침내 2007년, 현재 민원정보분석과의 전신인 민원정보분석센터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민원은 단순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민원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나라에 대한 민국이 유일하다.

국민에게 불합리한 정책 개선의 시작은 민원 정보 분석으로부터

민원정보분석과의 하루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기적으로 접수되는 민원, 처음 접수되는 민원, 국민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민원 등 주요 민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

“대다수의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생한





사례들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관계 기관에 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 내 관련 부서와도 공유해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분석과에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에 수록하여 약 300여 개 행정기관에 매주 제공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민원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 작년 한해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에 소개된 민원 사례는 207건으로, 그 중 행정기관에서 활용한 사례는 118건이었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72건에 이르렀다. 제도개선 활용률은 2015년 30.7%에서 2016년 34.8%로 증가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경찰청은 횡단보도에 배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 표시가 글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점자로 교체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신규인용교사 발령사항 홈페이지 공개 시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하던 것을 폐지했고요. 기

존에는 개인이 우체국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현금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두가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한 사례들입니다.”

정책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국민의 소리

국민의 불편,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민원정보분석과. 지금 민원정보분석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정보분석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3년에 걸쳐 3단계로 이루어질 시스템 개선은 보다 정확한 분석은 물론 더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민원예보와 민원경보는 정기예보와 수시예보로 개편할 예정이다. 과거 특정 시기에 발생했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정기예보,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면 기존 분석 정보를 토대로 주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민원정보분석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까지 예측해 예방하도록 하는 수시예보를 통해 해당 기관이 필요로 하는 예보를 빠르게 전달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원 분석 정보를 국민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으니까요.”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민원정보분석과.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는 미래를 위해 이들은 오늘도 고군분투 중이다.

포춘쿠키가 전해온 '행운의 메시지'

민원정보분석과에 도착한 포춘 쿠키엔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을까?
일상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귀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내 방심만 고집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섬에 살게 됩니다. 다소 섬에 차지 않는다
해도 그들의 방식도 존중하고 따라주세요. 어쨌든
사는 것입니다.

정차철 과장



망설이거나 미루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잡으십시오.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끝
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박길홍 사무관



메시지를 받고 명확한 가운데 하십시오. 행운은 밝은
공간을 찾아 여행하는 빛의 손입니다. 당신 또한 빛의
사람이어서 행복한 행운을 유지하십시오.

김설희 주무관



집에 가는 길에 작은 서점에 들러 시집을 사보세요.
메마른 당신의 감성에 맑은 샘과 같은 정령이 될
것입니다. 감성은 아이들을 섬세하게 하고 높은 단란을
도와줍니다.

최상권 주무관



조금 덜 생각하고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덜 비관하게
산다 하여 행운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운은 비관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민이 주무관



결과는 기다리며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은 충분합니다. 반드시 보상이
주어질테니 염두에 두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김종원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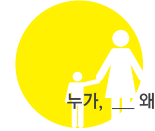
인천대공원역 주변 통행로 불안
안전 대책 마련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매일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이
좁고 어둡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지난해
개통된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에서
귀가하는 주민들의 고충 이야기다. 즐겁기만
해도 모자랄 귀갓길에 불편을 안겨준 고민,
국민권익위원회가 귀 기울여 들었다.

정리+사진, 편집실



누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주민들은 인천대공원역에 가기 위해 주택가와 역 사이를 잇는 임시 보행로를 이용해야 한다. 현대 나무가 우거지고 길이 어두워 다니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노약자와 부녀자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은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 남동구는 새로운 보행로가 설치될 경우 인근 장수 3호 주차장의 면적이 줄어든다며 기존 보행로를 계속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장수동 주민 116명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월 20일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회의실에서 장수동 주민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중재안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규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 신규 보행로가 장수 3호 주차장을 우회하도록 하여 주차 면적 축소 문제를 방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신설되는 보행로와 주차장 경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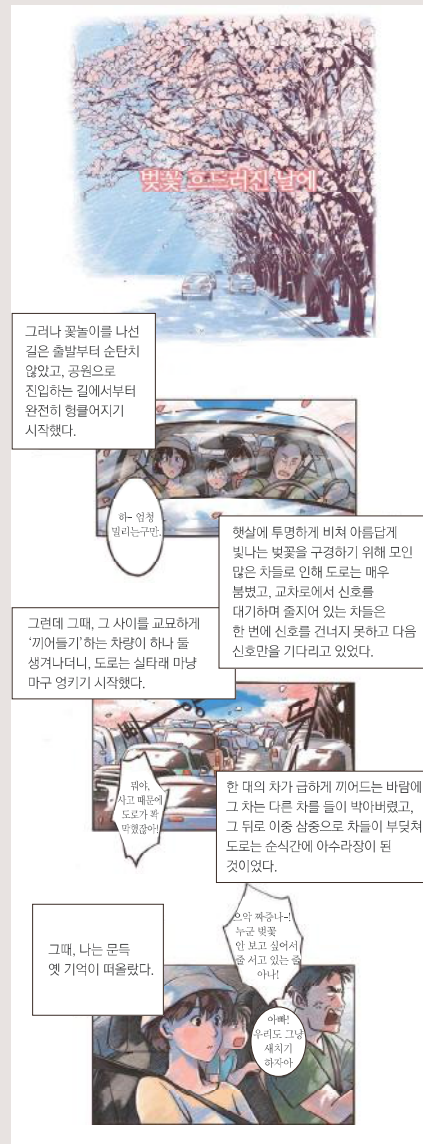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 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년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웹툰 일반부문 대상 수상작

청렴 廉깨끗한 당신의 이야기

본 작품은 사연(수기) 공적부문 우수상 수상작을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부문별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 '수상작갤러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차에 부딪쳐 접촉사고가 나버렸고, 안 그래도 주차장처럼 뻥뻥하던 도로는 내가 낸 사고 때문에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다.



차에서 내려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나는 한 시간 가량을 도로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해야만 했다.



중간에서 가고 역할을 해 준 선배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라고 다급하게 전화가 왔지만, 나는 상황을 더 설명할 수 없었다. 선배는 그 분께서 기다리다 화를 내고 돌아가셨다며 나를 책망할 뿐이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내 차는 견인차에 매달려 정비공장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나는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혀 피그러진 채 견인차에 끌려가는 차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굴해보이기 그지 없었다. 마치 그날의 내 자신이 꼭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벚꽃 흐드러지게 핀 가로에 혼자 남겨졌다.

하...

직장과 도로 위에서 나는 '끼어들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내가 그 순간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그저, 영문을 알 리 없는 벚꽃만이 내 머리 위로 그 고운 꽃잎을 부분이 흩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간 옛 생각에 잠시 빠져 있는 동안, 교통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앗, 도로가 좀 풀리고 있어요!

그 일 이후로 나는 역시 승진하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 덕분에 나는 사망갑을 가지고 맡을 일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으니까.



생들아, 만약 저 자들이 억지로 끼어들기할 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고도 나지 않고 지금쯤 모두가 벚꽃나무 아래서 꽃놀이할 줄 알고 있었을텐데, 그렇지?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안 그래!

그날의 벚꽃은 분명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동네 벚꽃이 참 좋다.

이 흐드러진 벚꽃 아래에서, 나는 지금의 내 아이들에게 멋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눔시끼기 진짜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벚꽃 명소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나와 같이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기대한다.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그리고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 우대받는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

벚꽃 흐드러진 날에

홍지영

즐겁고 재밌게 작업한 작품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어느 때 보다도 청렴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가 전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식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각 개인 저마다의 크고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을 응원, 지지하며,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아름답게 그려져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지구를 꿈꾸다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반부패 교육 연구를 위한 국제기구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IACA는 UN 반부패 협약 등 일련의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특히 반부패 분야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UN마약범죄국, EU부패방지국, 오스트리아 정부, 인터폴 등 다자간 공동 사업으로 시작했다. 2011년 3월 8일 기관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이 발효되면서 국제기구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현재 3개의 국제 기구를 포함한 70개 당사국이 있다.

• 국제교류담당관 강미영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와 IACA 양자협력 현황

- ☑ 2012.3.27 국민권익위-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
- ☑ 2012.11.29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IACA 이사로 선출
- ☑ 2013.4.5 1억5천만원 재정 기여금 제공

글로벌 반부패 연구의 싱크탱크

IACA는 정규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반부패 종사자 간 대화와 네트워킹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반부패 연구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반부패 석사 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이다.



ACRC 맞춤형 훈련(2015. 6. 11~17)

이 과정은 2년간 7개 모듈(모듈별 3개월, 모듈별 2주만 캠퍼스 강의)을 학습하고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전 세계 공무원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의 반부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부패 척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와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모듈: ①부패의 개념과 이론 ②부패와 경제 ③정치와 부패 ④기업과 부패 ⑤반부패와 법률 ⑥(반부패)법집행 ⑦(부패)예방

이외에도 여름 아카데미(2주), 지방정부(5일), 조달 분야(5주)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과정이 매년 개설되며, 특정기관이나 기업별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 맞춤형 교육은 부패 척결 및 예방과 관련한 이슈 중 조직의 관심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 여름 아카데미 과정은 반부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명한 학계 및 반부패 전문가 강의를 통해 국제적인 반부패 경향과 실재를 학습할 수 있으며, 2015년 남미, 2016년 동아프리카에 이어 올해에는 아시아 지역 과정을 중동에서 개최(9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IACA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는 전 세계 140개국 1,000여명에 이른다. IACA는 연수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ACALUMNUS'라는 연수생 잡지를 발간해 연수생들의 자국 내 반부패 활약상을 공유하고 있다.

IACA에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2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먼저, 양종삼 과장은 2013년에 파견되어 IACA 프로그램 및 활동부 학술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의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정책을 IACA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양 과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정책 개발 및 청렴도 조사 평가 관련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다. 또한, 최유진 사무관은 IACA 프로그램 및 활동 부서장으로 정규 및 맞춤형 과정을 기획·관리하고 있다. 최 사무관은 국민권익위 근무 당시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APEC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 회의를 주도했고, G20 반부패 실무그룹 및 OECD 반부패 워킹그룹의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2017년 교육프로그램 안내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2017년도 정규 프로그램(Standardized Programme)

반부패 석사 과정

- * 주 제: 반부패 분야 전반
- * 교육기간: 2017. 10. 2~2019. 12(2년)
- * 신청기간: ~2017. 5. 31
- * 비 고: 학위 과정

국제 반부패 여름 아카데미

- * 주 제: 반부패 분야 전반
- * 교육기간: 6. 30~7. 7(8일)
- * 신청기간: ~3. 20

지방 반부패 훈련

- * 주 제: 지방정부의 반부패 문제
- * 교육기간: 7. 10~14(5일)
- * 신청기간: ~4. 7

조달 분야 반부패 훈련

- * 주 제: 조달분야 부패 예방 및 척결
- * 교육기간: 7. 17~8. 18(5주)
- * 신청기간: ~4. 18
- * 비 고: 1주간만 캠퍼스 교육, 나머지는 원격 교육

Best of 시리즈

- * 주 제: Drago Kos, OECD 반부패 실무그룹 의장
- * 교육기간: 7. 4~5
- * 신청기간: ~4. 18
- * 자세한 내용은 IACA 홈페이지(www.iaca.int) 'Master Program' 및 'Open Trainings' 참조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Tailor-made Programme)

부패 척결 및 예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기관·기업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기간, 언어, 장소 등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쳐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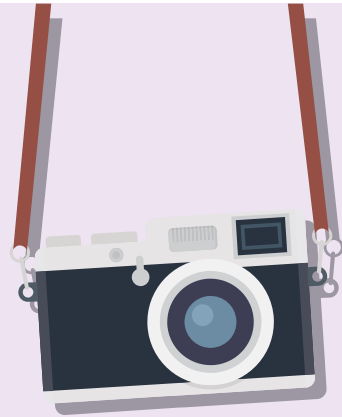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교육 사례

- * 기 간: 2016. 4. 20~28
- * 참 석: 우수 시책 기관 26명
- * 내 용: 공공 분야 청렴도 및 정치 부패, 부패 예방, 국가 및 국제 우수 사례 소개
-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 및 반부패 기관 방문

*자세한 내용은 IACA 홈페이지(www.iaca.int) 'Tailor-made Training' 참조



국 민의
민 원에 귀 기울여 듣고
권 리를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익 히고 배우며 활동할 블로그 기자단, 파이팅!



“2017년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의 [] 를 소개합니다!”

[소식통] 이종현

2012년 제8기 기자단 활동을 시작해 11기, 12기 그리고 올해 제13기까지 오랜 시간 권익위와 인연을 맺어 온 만큼 제가 알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부 내 여러 부처 중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부패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쓰는 부처라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요건, 효력 등 실제 법리적인 부분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밥] 이항현

저의 넘치는 긍정 에너지로 국민권의 기자단 동료들에게 도움과 위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자단 활동으로 이런 점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손전등] 박진실

숨겨진 보석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밝게 비추겠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자연스럽게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업무에 눈길이 갔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구제 수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블로그 기자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분석, 홍보하겠습니다.



[제비] 주건욱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흥부에게 박씨를 물었다 준 제비처럼 국민에게 권익위 활동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12기에 이어 제13기 기자단을 연임하게 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았습니다. 저도 국민권익위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지난 1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자단 활동 안내와 12기 연임 기자들의 소감을 전해 듣는 시간이,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실·국 담당자들의 업무소개가 이어졌다. 총 35명으로 구성된 제13기 블로그 기자단은 일반 기사뿐만 아니라 카드뉴스와 영상, 웹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권익위 활동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오작교] 성민찬

견우와 직녀를 연결해주는 오작교처럼 국민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신저가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청탁금지법이 화두였던 때, 우연히 국민권익위 공식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고,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묵묵히 많은 일들을 하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저 또한 값진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림자] 권영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현장에 권익위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가 꿈인 저는 평소엔 정치와 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2016년을 지나오며 가장 크게 느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겠구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현장을 제가 직접 취재하고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발굴자] 임성호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씩 쏟아지는 수많은 자료 속에 파묻혀 있던 알찬 정보, 소식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 시절 구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민원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국민신문고'가 참 유용한 해결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블로그 기자단 지원 동기가 되었습니다. 곧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 사회에 나가게 될 저의 성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확성기] 김민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크게 소리 내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저는 사회문제,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생 정책유치리스트 활동을 하며 국민생각함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의 여러 활동들을 블로그 기사로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과20 결정)

청렴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간 개별적·구체적 사례들의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 따라 가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판례를 통해 법의 올바른 판단을 함께 이해해보자.



올바른 법의 정착,
청렴한 세상으로!

사실관계

A 씨는 춘천경찰서에 사기죄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해당 고소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과 일정을 조율해 2016년 9월 29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2016년 9월 28일(사건 당일) :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하 'B 씨')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이하 '이 사건 금품')를 전달하도록 부탁했다.

사건 당일 14시 30분경 : B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 해 'A 씨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은 그 즉시 주차장으로 나가 B 씨에게 떡을 가져온 경위, 신분 등을 물었다. B 씨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B 씨가 돌려받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사건 금품을 받아둔 후 A 씨와 통화를 했다.

사건 당일 15시경 : 담당 경찰관은 퀵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 금품을 A 씨에게 돌려보냈다. 그 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춘천경찰서장은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고, A 씨의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춘천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또는 그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 는 아니 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금품은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한 담당 경찰관에 의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A 씨에게 금품 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1 : 담당 경찰관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A 씨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만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8조 제3항 제2호

원만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근거2 : A 씨가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기 하루 전에 B 씨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다.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가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의 검토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홍보했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그런데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016년 9월 28일, 경찰관에게 떡을 제공했다. 그 점에서 A 씨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임을 알지 못하고 떡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더불어 A 씨가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떡 1상자를 제공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 씨는 고소장을 제

출한 후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고소인 조사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조사받기로 예정된 날 하루 전에 업체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제공했다. 이는 원하는 조사날짜를 정해준 것에 대한 단순한 답례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떡을 제공하여 환심을 얻은 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 떡은 공직자들에게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그 경찰관이 A 씨로부터 떡을 제공받고 사기사건의 조사를 했다면, 피고소인은 편파적인 조사였다고 불평하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 사건 재판은 타당하다.



앞으로 공직사회는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정의로움에 하여 새롭게 도약할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탁금지법과 소비진작의 공존 방안

청탁금지법의 일명 3·5·10 가액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부패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필자로서는 반가운 논란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이익의 수준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되는 현상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가 반부패 문제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양날의 검?

청탁금지법의 규제가 과도하여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다. 소비진작이나 경제 활성화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부정부패의 척결을 목표로 하는 청탁금지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가 그렇다.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요식업, 축산업, 화훼업 등에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제 활성화의 문제도 고려하여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공직자등에 대한 이익 제공 금지를 통한 부패척결이라는 정책 목표와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청탁금지법을 통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정책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경제 활성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부패척결이라는 입법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규제수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효과와 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한으로 인하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한 금액 이내의 상품에 대한 수요(즉, 3만 원 이하의 식사, 5만 원 이하의 선물)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경제구성원들이 그로 인하여 남는 금전 및 시간으로 다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산업의 수요가 증대하여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 산업별로 볼 때에는 고가의 요식업이나 고가의 상품 제조업은 피해를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에 대한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그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사회의 일반인이 그러한 수준의 이익제공이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내지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최우선의 잣대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가 사회 속에서 발현된 결과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가 부패인식지수(CPI)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기준 변경의 대가로 부메랑이 되어 다시 우리 사회로 되돌아올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훼손은 결코 쉬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청탁금지법을, 아니 다시 한 번 사회 전체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시행 5개월째를 지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하루속히 정착되고 준수되어 우리나라가 반부패 이슈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청탁금지법

하루속히 정착되고 준수되어

우리나라가 반부패 이슈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 홍탁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청탁금지법, ‘관계’를 재정립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일대 변혁을 몰고 온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새로운 법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은, 결국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자명한 시대적 요구를 누르지 못했다. 그렇게 시행 5개월여. 예상대로 우리네 세상 풍경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청렴韓 우리> 코너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변화된 사회상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본다.



일하는 사람은 일단 잘하면 된다?

사업 초기 호기롭기만 했던 시절, 거래처 사이에서 나는 이른 바 ‘인사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통했다.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개의치도 않았다. ‘일하는 사람은 일단 잘하면 된다’라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철학과 타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겐, 그 의도가 순수하든 불순하든 마치 관계처럼 여겨지던 고객과

의 관계 유지 내지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었던 터다.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흔히 접대비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던 비용이 자연스레 줄어 회사 운영적면에서는 분명 보탬이었지만, 오랫동안 이어오던 고객과의 사적 관계의 끈을 법 시행과 함께 무르듯 단칼에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곤란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최근의 풍경을 바라보면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시행 초기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가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젠 없다. 업무상 필수적인 만남 외에 불필요한 만남의 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다. 다 큰 성인들에겐 민망하기만 했던 ‘더치페이’ 문화도 자연스럽다. 기업과 거래처 모두에게 통용되는 확고한 기준이 마련된 덕에 쓸데없는 눈치 보기도 사라진지 오래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은 관계 유지나 개선을 위한 노력의 노선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좋은 관계 유지’의 기준이 단순 영입이 아닌, ‘기술 영입’ 쪽으로 옮겨 갔다.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수준 높은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기업에 대한 고객의 판단 기준 역시 그 결과물의 만족도로 평가를 내는 것이다. 기업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 역시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되며 기업과 거래처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몰고 오는 상생과 동반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 물론, 때때로 회포를 풀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법이 근거한 테두리 안에서 말이다. ‘일하는 사람은 일단 잘하면 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인으로서 나의 철학을 사업 초기로 되돌려 놓았다. 그런데 그때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일에 집중하되, 주어진 법률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고객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글: 김성환
(광고/홍보 에이전시 대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청탁금지법, 그 후 경제 풍속도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카드사용 오히려 13.5% 늘었다

- ▷ 2016년 10월 한 달간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 함께 사용액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
- ▷ 고급음식점,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8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감소세
- ▷ 반면 중식당 14.8%, 한식당 11.8%, 양식당 3.2%로 법인카드 매출 증가



청탁금지법 여파로 저가형 선물세트 판매 ↑

- ▷ 설 선물세트 구매 데이터 분석 결과 3만원 미만 저가형 선물 세트 판매 비중 87%
- ▷ 고가 선물은 줄었지만 생필품 및 감·스팸 등 실속형 선물이 대세
- ▷ 일일 최대 물량 약 20만개 증가로 택배 업체 ‘특별수송기간’ 지정·비상상황실 운영



저녁이 있는 삶? 대형마트 매출 증가!

- ▷ 법 시행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직장인이 늘어 대형마트 매출 상승·방문객 증가
- ▷ 외식업 매출은 줄었지만 식료품 소매판매는 7~10% 성장으로 반사이익 누려
- ▷ 저녁 6시~9시 방문객 수 5.3% 증가해 전체 평균보다 1.8% 높아

통계로 보는 청탁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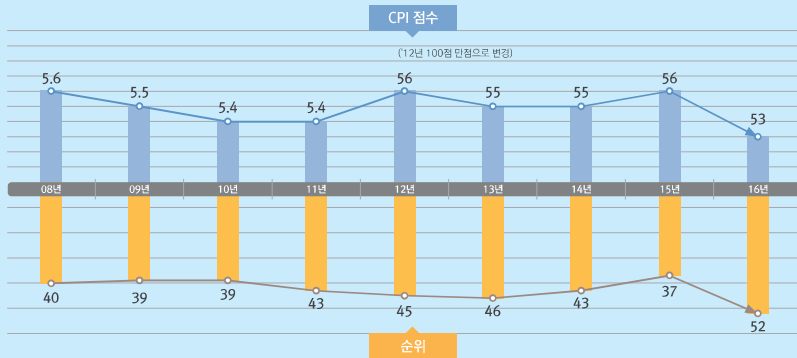
예상대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를 몰고 왔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청탁금지법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생겨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까. 통계를 통해 알아본다.

대한민국 청렴도, 이대로 괜찮을까?

176개국 중 52위, 그마저도 전년에 비해 15계단 대폭 하락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이와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기준을 OECD 회원국으로 바꾸면 결과는 더욱 눈에 띈다. 35개국 중 29위로 전년 대비 2계단 하락, 점수는 53점으로 OECD

평균인 68.6점보다 15.6점이나 낮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패 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 대한민국 CPI 변동 추이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구분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2016	1위 (90점)	1 (90)	3 (89)	10 (81)	18 (74)	23 (69)	29 (62)	41 (58)	52위 (53점)	60 (47)	69 (44)
2015	1위 (91점)	4 (88)	2 (90)	10 (81)	16 (76)	23 (70)	30 (62)	36 (58)	37위 (56점)	61 (44)	5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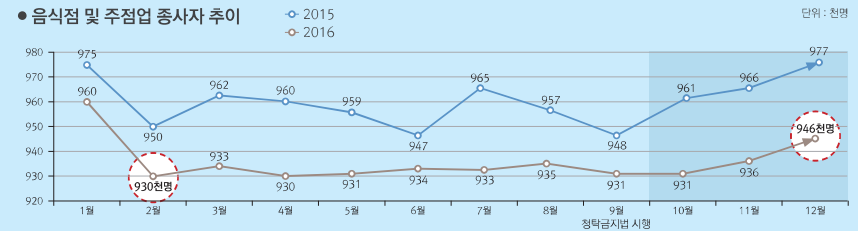
청탁금지법과 경제와의 상관관계?

최근 언론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연속 요식업 종사자가 1년 전에 비해 3만 명가량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음 통계를 보면 어불성설이다. 2016년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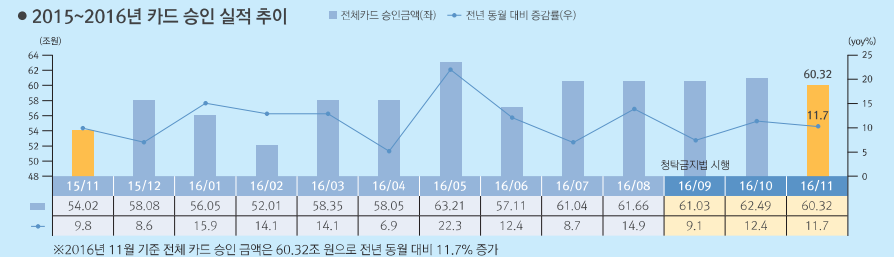
감소했다. 2월에 3만 명이 감소한 이후 10월까지 93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법 시행 이후인 11월, 12월에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10월(93만1천명) → 11월(93만6천명) → 12월(94만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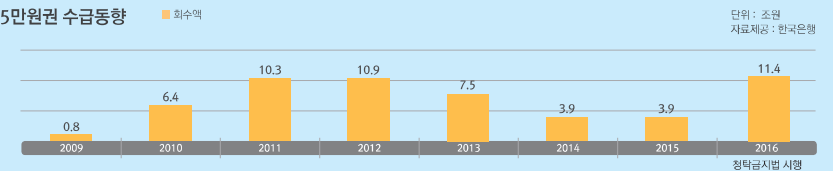
●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추이



● 2015~2016년 카드 승인 실적 추이



● 5만원권 수급동향



또한 한국은행이 임시국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만 원권이 11조 4,000억 원 가량 환수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준으로 5만 원권이 시중에 유통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수치다. 화폐 환수율이 높으면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한국은행은 이를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과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경제 지표가 청탁금지법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변화를 향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청리, 편집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청렴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그 주무 부처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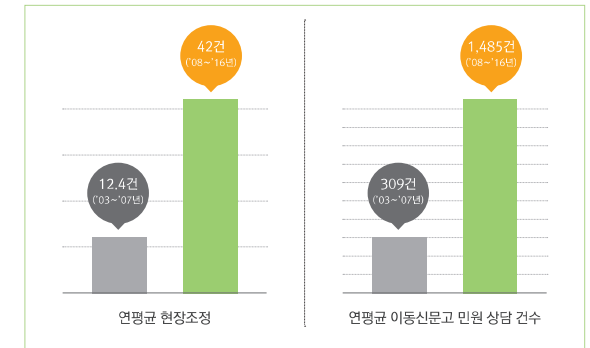
하지만, 국민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 고충처리 전담반이자,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인 '고충 민원'과 관련해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년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한다.

정리, 편집실



국민 중심의 적극적 민원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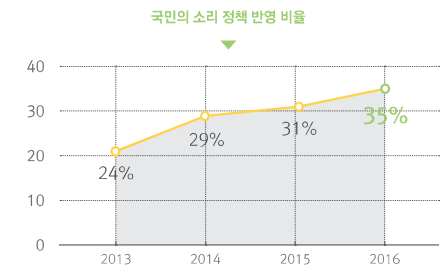
권익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려 노력하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총 27만 9천여 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3만 4천여 건을 인용했다. 또한 378 건의 집단 민원을 현장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399회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만 3천여 건의 사회적 약자 등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해 국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로 접수된 37만여 건의 아이디어 중 1만 5천여 건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9년간 총 42만 3천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철저한 민원 분석 노력도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몫했다. 지난 2011년부터 접수된 민원을 주간·월간 단위로 분석하여 총 1천 2백여 건의 민원 사례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355건을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민원 해결과 고충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권익위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 구제

국민권익위는 2017년 정책 추진 방향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소통과 협업으로 행정 서비스 관련 불만과 불편을 해결하고, 청렴한 사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의 소리 경청과 눈높이에 맞는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권익 증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 고충 중점 해소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해 민생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한다. 4대 보험 공단의 과도한 통장 압류와 공공 금융기관의 무리한 채권 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공사과 용역 등 부당한 공공 계약, 지나친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 청취 등을 통해 영세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 계층 민원의 근본적 해결 도모를 위해 민원 사례 등 취약 계층의 고충을 정밀 분석,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 중심 민원 해결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노력도 강화된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숙원 사업이나, 파급 효과가 큰 민원에 대한 조정을 확대하고, 유사 빈발 민원의 처리 방식 정형화에 따른 신속한 해결을 통해 집단 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교통안전 기획 조사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한 터널과 교량 등 특수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변 공작물 충돌 예방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화 운영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 고충 해결 기회 확대, 새터민과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 대상 집중 운영 등을 통해 이동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국민과 정부 간 소통 창구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 민원 시스템을 '국민 신문고'로 통합 확대한다. 또한, 기억하기 어려운 8자리 민원 전화를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연계하고, 재능 기부 전문가단을 구성, '국민생각함' 안건 검토에 참여한다. 비정상적인 민원 처리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도 추진되는데, 관행적인 처리 지연과 핑퐁 민원 행태를 집중 점검해 민원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 행정기관 민원 점검 회의'는 정례화해 각급 기관의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국민신문고 통합 지방자치단체 수



국민의 소리 심층적 분석·활용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 분야 및 보육·교육, 취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국민 불편·불만을 조려하는 분야의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중점분석과제(안)



복지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장애인 권익 및 편익 증진 등



교육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학교폭력·교육현장 실태 등



경제

서민 금융부담·피해,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고용

비정규직 고충, 임금 체불 등

고충 민원 처리 절차

고충 민원,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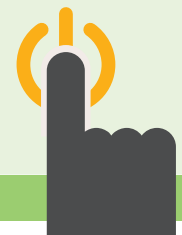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권익위법 제2조)

고충 민원의 세부 내용

-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권익 침해, 불편·부당이 되는 사항
- 민원 처리 기준 및 절차 불투명,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 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불합리한 행정 제도·법령·시책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밖에 행정과 관련 권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민원 접수 방법은 모바일, PC를 통한 인터넷 접수,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대표 전화 '110'을 통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익 보호를 위한 착한 공식

고충민원 수용 **84.7%**

위원회
권고 사항
수용 현황



수용건수
1,422건

지난 3년간
고충민원 권고
84.7% 수용

민원, 권고, 수용, 그리고 종국적 해결. 국민 권익을 바로 세우가기 위한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과정이다. 2016년 12월 30일 기준,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권고가 84.7%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관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위원회는 2017년,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리, 편집실

○ 위원회 권고 사항 수용 현황

(2013.10.1 ~ 2016.9.30)

구분	권고사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합계	1,679	1,422	84.7%
시정 권고	677	592	87.4%
의견 표명	1,002	830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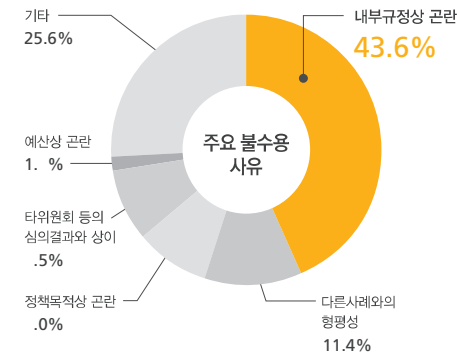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권고 사항 수용 현황

(2013.10.1 ~ 2016.9.30)

구분	권고사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계	1,679	1,422	84.7%
중앙행정기관	705	613	87.0%
지방자치단체	500	417	83.4%
공직유관단체	442	367	83.0%
기타	32	25	78.1%

※ 기타 : 교육청, 법원, 재건축조합 등

○ 주요 불수용 사유



수용되지 않은 권고 사항 211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 규정상 곤란'이 43.6%(92건)로 가장 높으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11.4%(24건), '정책 목적상 곤란' 9.0%(19건)순으로 나타났다.

수용 우수 사례 소개

〈경찰청〉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부득이한 교통 위반 처벌 취소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부득이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경우 관련 입증을 파악하여 과태료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 요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68km 지점의 제한 속도가 100km/h임에도, 신청인이 해당 지점 1차로에서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를 141km/h로 운행한 것이 무인 단속 장비에 적발되어 110,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 위반은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불가피한 위반이므로 특례를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

피 신청 기관 처분 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서는 이송한 환자가 응급 환자라고 입증할만한 소견이 되지 않았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위원회 권고 내용(판단 근거)

1. 신청인이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시 '환자진료(후송)증명서' 등 응급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인 정보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의 확인 없이는 발급이 곤란한 '의료 기록'을 병원장에 요구하여 발급이 거절되자 응급 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점.

2.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이 이송 환자에 대해 급성식장애 및 급성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응급 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응급실 이송 다음날 사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

피신청기관의 적극적 수용

시정 권고 이후 피신청인은 '과태료 긴급 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경찰청 본청을 통하여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

전남 보성군 이동 신문고

현장에 답이 있다

지난 2월 23일, 이동신문고가 보성군청 대회의실을 찾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이날 상담에는 갖가지 고충을 가진
군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 그 현장 속을 함께 들여다보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 우문현답



국민들의 고충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그걸 들어줄 곳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더욱이 있어도 활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심정은 또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고충 제기가 어려운 소외지역, 취약 계층 국민들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왔다. 이동신문고란 국민권익위 소속 조사관들과 협업 기관 전문 상담사들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이동신문고의 가장 큰 특징과 목적은 '현장 해결'이다. 일반 고충민원은 처리 기간이 60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동신문고에 찾아오는 주민들은 현장에서 바로 답을 주기를 원한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사전 예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복잡하거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접수를 받는 것이다. 물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은 작년 기준 41.9%다.

또한 이동신문고가 지역을 찾아와도 그곳조차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직접 조사관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업무 담당자를 민원인과 함께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당장 끼니를 굶고 있거나 지붕이 누수 되는 문제 등은 행정적으로 잘 못된 고충은 아니다. 이처럼 실생활에 가까운 고충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에 한국 사회복지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로 방문하는 곳이 농어촌 지역임을 감안해 작년 5월부터 한의 진료소 서비스도 시작했다. 해당 지역의 한의사분들이 나와 구민들이 대가 시간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보성군을 거점지역으로, 고흥·화순 주민들까지

이동신문고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원하는 지역 접수를 받거나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240여 개가 넘는데, 1년에 모든 지역을 방문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매년 거점지역을 정한다. 31개 거점 지역을 정해 102개의 인근 지자체 참여를 추진하여 올해는 총 133개의 지자체 주민들이 이동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점 지역을 두고 인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화로 운영하는 것이다. 2월에 진행된 이동신문고를 예로 들면, 전라남도 진도, 보성, 여수가 거점 지역이 되고 주변 지역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홍보하였다. 보성은 고흥, 화순에 사는 분들 또한 보성군청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접수를 동시에 받았다.

이날 보성에서 진행된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전문조사관 10명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 분야별 전문 상담사가 참여했다. 상담장에서는 사전 예약한 31건의 민원과 현장 접수한 5건의 민원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보성 인근 지자체인 고흥과 화순의 군민들도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주요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10건, 산업농림환경 8건, 복지노동 3건, 도시수자원 3건, 생활법률 3건 등으로 공공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모든 상담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현장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사안이나 단순 궁금 사항은 합의·상담으로 즉시 해결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적인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한 이동신문고 차량

국민권익위는 지역형 이동신문고 외에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을 찾아가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제도와 달리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 특정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집 지역에 운영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어떤 고충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권익위, 그들의 노력에 국민들이 걱정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MINI NEWS



김 할머니의 눈물

이날 보성에서는 권익위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 또한 이뤄졌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할머니께서 지붕 누수 문제로 사전 민원예약을 신청했으나 군청까지 찾아올 수 없게 된 것. 직접 현장을 동행해보니 지붕과 천장 상태가 심각했다. 보성군청에서도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내와 지자체 연결 사업으로 지붕 교체 작업과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맙소, 너무 고맙소”

비가 오면 동네 사람들이 비닐 막도 쳐주고, 바가지도 놓아주며 도와주긴 했지만 억부족이었다고 말하는 할머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지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 그간의 서러움이 터져 한참을 하소연하셨다. 연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는 김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오길 바란다.



민원인의 고충을 듣는 김성훈 이동신문고 팀장

‘포켓몬 고’ 열풍과 증강현실

한때 좀 이상하고 약간 다른 부류로 여겨지던 오타쿠, 일명 ‘덕후’가 증강현실이란 기술을 입고 글로벌 문화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어릴 적 꿈꿔왔던 포켓몬 마스터를 실현가능하게 만들어 준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 글. 설명현(칼럼니스트)

세상 밖으로, 능동적 게임의 탄생



금전적 이득이나 눈에 보이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재미’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일본의 오타쿠 문화는 지금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를 탄생시켰다. 포켓몬 고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 지형 지물에 숨어있는 귀여운 괴물을 잡는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으로 닌텐도와 구글에서 분사한 나인틱이 개발했다. 위치기반(LBS, Location based service) 증강현실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속 캐릭터가 현실의 움직임에 따라 똑같이 움직인다. 특정 스팟에 가면 아 이템이 나오고 포켓몬 고 체육관에서 매치도 할 수 있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가상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일부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실제 도로와 건물에 나타나는 캐릭터를 잡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는 지난해 7월 출시 후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출시된 지 연세 만에 700만 다운로드, 미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이용자가 트위터를 앞섰고 이용시간에서는 페이스북을 제쳤다.

꿈의 실현, 포켓몬 신드롬을 불러일으킨다

포켓몬 고를 포함한 모바일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영화산업과 맞먹는 47조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식 서비스된 포켓몬 고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에 뒤늦게 출시한 포켓몬 고의 이용자는 출시 첫날 24일 약 291만명을 시작으로, 출시 2주차에 접어든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총 695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 게임은 모바일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관계없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켓

몬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며 고공에 인파가 몰리고, 주변 상권은 때 아닌 대박을 맛있다. 동네 문화유적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기현상이 발생했고 게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포켓몬을 잡으려 해외로 나가는 이색적인 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게임 속 용어들도 SNS를 뒤덮었다.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포켓몬 고가 한국에 정식 출시한지 열흘 만에 해시태그(#)로 포켓몬 고를 게시한 게시글은 24만개를 넘어섰다. 게임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중을 겨냥한 콘텐츠와 신기술의 만남

포켓몬 고의 성공은 단순히 증강현실 기술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 ‘포켓몬’이라는 콘텐츠에 기반 했기에 가능했다. 1996년 첫 등장해 닌텐도 게임의 출기를 이루며 20년간 꾸준한 인기를 끌어온 ‘포켓몬’이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증강현실에 완벽하게 융합했다. 이 게임은 ‘캐릭터+증강현실+구글맵’의 결합이라는 혁신을 통해 탄생한 대박 상품이다. 현실과 가상의 절묘한 조화로 유망 신기술로 꼽혀온 증강현실이 게임으로 구현되면서 대중화에 성공한 것이다. 1889년 화투 제조업체로 출발한 닌텐도는 포켓몬스터, 슈퍼마리오 등 캐릭터로 게임기 시장에서 신화를 썼지만 스마트폰과 SNS에 밀려 하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포켓몬 고 하나로 대반전을 이뤘다. 출시 일주일 만에 닌텐도 주가는 65.7% 치솟았고 시가총액은 1조3401억엔(약 15조원) 늘었다. 포켓몬 고의 성공은 향후 모바일 콘텐츠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포켓몬 고 열풍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대중적으로 증강현실을 강하게 경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가상의 컴퓨터그래픽 이미지를 일부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색채, 마음의 소리

색채표현이란 '무의식'의 심리적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는 외면화 작업이다. 색에는 선악이 없으므로 원하는 색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건강하게 한다.

색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봄이 되기를.

글. 백낙선(색채심리전문가, 스에나가메소드 색채심리연구소 소장)



나를 표현하는 **다채로운 색**

어린 시절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자연이었다. 뜰 안에 자라나는 다양한 식물, 곤충들과 함께 하면서 막연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때부터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했고, 구름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이러한 어린 시절을 색으로 표현해보면 파스텔 톤의 무지개가 그려진다. 파스텔한 봄 연둣빛으로 물들어있는 나뭇가지와 뜰 안에서 가장 먼저 꽃피웠던 산수유, 하늘의 구름과 태양을 보며 회로애락을 느꼈다.

사춘기 때 광화문 르네상스 음악 감상실과의 만남은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시기에 비밀스러운 마음을 가지런히 써내려갔던 노트의 색은 옥색이었으며 지금도 그 색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파랑과 노랑의 혼색인 초록색에 흰색이 섞여 만들어진 옥색은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무의식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20대 전반에 걸친 청년시절의 긴 방황은 햇빛에 가까운 무채색으로, 색채는 그 시절부터 내게서 점점 멀어져갔던 것 같다. 그림을 전공한 나는 색채의 사용으로 나를 표현하기보다 색채를 없애는 작업으로 나를 알아가려고 노력했다. 캔버스에 칠한 색을 닦아내고, 칠하고 또 닦아내고, 이런 반복된 작업을 통해 화폭에 베어든 햇빛의 희미한 색조가 표현되었을 때 드디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결혼 후 미국에서 둘째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 동안 생사를 넘나들던 시기가 있었다. 우리 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온 색은 보라색이었다. 그 색을 통해 위안을 얻고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

을 받았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뜰에 피었던 아주 작은 제비꽃과 친정엄마가 좋아했던 보라색 난초, 연한 보라색의 라일락 꽃의 향기가 나는 듯 했으며 돌아가신 엄마가 나를 위로해주시는 것 같기도 했다.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외향적 심리인 빨강과 안으로 향하는 구심적 심리인 파랑의 혼색인 보라색은 적절히 양면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의 정체를 통해 회복기에 자주 등장하는 색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도 비비드(vivid)한 색조보다는 채도가 낮은 스모키(smoky)한 색조를 더 선호한다. 그것은 나에게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색채 심리의 만남, 치유의 힘

색채심리란 색과 인간의 마음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빛(백색광)이 물체에 닿아 반사되어 망막에 상이 맺히므로 색을 느끼고 물체를 분별하게 되며 이렇게 분별된 색은 수많은 마음의 기억들로 이미지화하여 뇌 속에 저장된다. 그 안에 감춰진 무의식의 감정은 내면 깊숙이 남아있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수면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무의식을 밖으로 표출하는 외면화 작업이 색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수많은 임상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다.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으로 이루어진 무수한 색, 각각의 색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색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인 혼색은 혼재된 심리상태로서 여러 마음이 내재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 색과 색이 어우러진 배색(비슷한

색상의 동색배색, 유사배색/반대색상인 대비배색 등)은 인간관계와 흡사하여 갈등과 조화의 관계성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다양한 색채의 사용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스스로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색채에는 선악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을 색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토해냄으로 자신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새로운 색(감정)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된다.

무의식(우뇌)이 억압 받고, 그 문이 오래 닫혀 있을수록 우리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신의 병을 얻게 된다. 따라서 무의식의 문을 잠시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치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테라피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마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마음에 와 닿는 색을 찾아 내 마음을 표현해 본다면 가슴 속 깊이 울려오는 알 수 없는 감정과 만나게 되며 근원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색상별 심리적 경향을 소개하겠으나, 이것은 단지 공통 분모적인 심리일 뿐 개인의 경험에 의해 떠오르는 색채이미지에 의한 심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색상별 심리적 경향

- **분홍** 긍정적인 감정, 행복
- **빨강** 건강한 에너지 또는 공포, 분노
- **주황**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개방적 심리
- **노랑** 주목, 안정 욕구
- **초록** 심신의 균형
- **파랑** 마음의 진정, 차분함
- **보라** 치유의 감정
- **무채색**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지적 성장

암요,

건강 챙기셔야죠

유방

유방암의 특징적 증상으로는 멍뭍하고 통증이 없는 덩어리, 피부 함몰, 유두 위축, 유두 분비물, 껍질질 같은 피부 등이 있다.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을 실시한다. 40세 이후 1~2년 간격으로 검진 및 유방 X선 촬영 등을 진행한다.

예방법: 적당한 체중 유지, 저지방식, 음주 자제, 금연, 모유 수유 등

대장

대장암 또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 암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우측 대장암은 설사, 빈혈, 체중감소, 소화불량, 근력감소 등을 보이며 좌측 대장암 및 직장암은 배변 습관의 변화 및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직장수지검사, 대변검사, 대장 조영수술, CT 촬영 또는 MRI 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등으로 진단 가능하다.

예방법: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 비타민 C·E·칼슘 섭취, 적당한 운동 권장

피할 음식: 동물성 지방, 당분, 굵거나 튀긴 음식, 지나친 음주 등

대한민국 4대 암 예방하기

위

위암은 소화불량, 속 쓰림, 복통 등의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에서 시작된다. 암이 진행되면 체중감소, 토혈, 구토, 혈변 등이 나타난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40세 이상은 1~2년에 한번 위내시경 검사를 필수로 한다.

예방법: 녹차, 마늘 등 섭취, 청결한 위생상태, 금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치료

피할 음식: 훈제식품, 절인 음식, 질산염 첨가식품, 고탄수화물, 상한 음식, 탄 음식 등

폐

폐암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다. 암이 진행되면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 고 위험군인 40세 이상 흡연자는 6개월마다 흉부 엑스선, 객담 세포진 검사, 저선량 나선식 단층촬영으로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좋다.

예방법: 금연(남성 폐암의 90%, 여성 폐암의 78%가 흡연으로 생긴다.)

100세 시대가 멀지 않은 미래로 다가왔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1세로,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암이다. 100세 장수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암 예방법을 통해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보자.

자료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소식 2016년 2월호 발췌)

암의 원인 및 위험 요소를 멀리하자



1 흡연/간접흡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일찍 사망할 위험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33%나 높다. 간접흡연도 흡연과 마찬가지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과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에 해롭다. 암을 예방하려면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흡연자는 가능한 빨리 금연하고, 비흡연자는 되도록 간접흡연을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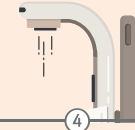
2 감염

특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B형간염 바이러스(HBV)나 C형 간염 바이러스(HCV)는 간암 발생 확률을,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는 질암, 음경암, 항문암, 구강인두암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위험 요인이다. 특히,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 주사기, 침술, 문신, 피어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 위암 발생의 고위험군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3 자외선

햇빛 속의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그을리거나 기미 등의 잡티를 만들 뿐 아니라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옷을 갖춰 입고,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피부 암(흑색종)에는 예방 효과가 없다. 흑색종을 야기하는 자외선의 파장은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광 차단제를 발랐다고 안심하고 오랫동안 햇빛에 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방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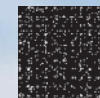
엑스레이 사진이나 CT검사 등에 쓰이는 방사선은 선량이 많지 않지만 지나치게 자주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진단적 방사선 노출은 나이가 어릴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해로울 수 있으며 자주 노출 될수록 그 위험성도 증가한다. 방사선 노출은 여성의 백혈병, 갑상선암,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골수종이나 폐암, 위암, 대장암, 식도암, 방광암, 난소암 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암 예방에 좋다.

낭만과 맛이 깃든 ‘추억 여행지’ _ 춘천

테마 여행 ; <자전거> 편

바람이 분다. 봄바람이다. 다리 위에도, 강변 벤치에도, 빼떡하게 눌러쓴 헬멧 옆으로도 싱그러운 강바람이 스쳐 지난다. 춘천은 추억의 명소다. 학창시절 MT를 다니던 경춘선의 종착역이었고, 주머니 사정 넉넉지 않은 청춘들이 마음먹고 나섰던 야외 나들이 코스였다. 봄의 길목, 춘천행 열차가 제법 분주해졌다. 북한강을 잇는 자전거길이 정착됐고, 추억으로 연결되는 길도 빨라졌다.

● 글+사진, 서영진(여행 칼럼니스트)





살과 문화가 더해진 낭만시장

춘천은 많이 변했다. 춘천 역부터 번쩍번쩍해졌다. 역에서 받아든 춘천지도를 보면 춘천 명동에만 있는 줄 알았던 닭갈비 골목은 어립잡아 일곱 곳이다. 신북, 동면, 만천리, 낙원동, 온의, 후평동... 이들이 모두 닭갈비 골목 이름이다. 웬만한 식당들은 서너 집 건너 한 곳이 닭갈비, 막국수 간판을 내 걸고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오래된 터의 뒷골목이 그림자. 명동과 중앙시장은 춘천 나들이의 원조 격인 곳이다. 명동 옆,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은 낭만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변신중이다. 비좁은 시장골목 구석구석 벽화가 그려졌고 연주회가 열리며, 춘천의 옛 이야기와 풍경, 시장을 잇는 산책길이 부각되고 있다. 새롭게 단장됐지만 전해지는 자연과 소박한 풍경은 예전 그대로다. 일제강점기시대부터 문을 열었던 시장은 6.25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되며 모습을 감췄다가 1952년 다시 장이 서기 시작했다. 맛 집들은 수 십 년 전통을 간직한 가게가 여러 곳이다. 내장 골목에는

길목에 소, 돼지의 내장들을 진열해 놓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전쟁 후 내장을 합지에 이고 다니며 팔다 정착한 원조집도 있고, 60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끓여오던 순대국을 머느리가 대를 이어 내놓는 가게도 남아 있다. 소문난 닭집 옆에는 직접 뽑아 말린 건면을 파는 황소표 국수집이 좌편 어깨를 맞춘다.

예술, 맛을 담아낸 옛 골목들

춘천 명동길은 여전히 흥청거린다. 명동길 초입에는 추억의 드라마 '겨울연가'의 흔적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로 여전히 분주하다. 명동길은 유명한 춘천 닭갈비 골목으로 이어진다. 초입에 닭 모형이 그려져 있는 흥미로운 모양새다. 튀김 도너츠 가게들은 대부분 '명동 사람들'이 주요 손님들로 간판 밑에는 친절하게 일본어로 메뉴가 적혀 있다. 30~40년 세월의 정겨운 분식집들은 착한 가격을 간직한 채 오밀조밀 몰려 있다. 노스텔지어를 부추기는 춘천 여행은 예술가의 흔적이 묻어나는 도심 망대골목으로 연결된다. 망대는 예전에 화재를 감시하던 탑이었는데 망대 인근 산비탈에 한집 두집 집을 지어 살면서 동네가 형성됐다. 이 망대골목길에서 조각가 권진규가 하숙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화가 박수근이 그림을 그리며 가난한

망대골목 풍경



세월을 곱씹었다. 망대골목과 나라히 연결되는 고개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죽림동성당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약사리 고개 너머 만나는 공간 역시 맛있는 사연이 묻어났다. 춘천의 3대 막국수 집으로 꼽히는 허름한 외관의 남부 막국수는 고춧가루로 간을 하고,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비벼 먹는 법을 45년째 이어오고 있다. 남부 막국수 옆에는 1968년에 문을 연 대원당 빵집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다.



춘천 가는 열차 이름이 'TTX-청춘'이다. 청량리의 '청', 춘천의 '춘', 앞 글자를 따서 지었는데 청춘시절 춘천행 열차에 오르던 기억을 되살려낸다. 요즘 춘천행 쾌속열차는 서울~춘천 간을 1시간 만에 주파한다. 차창에 비껴 흐르는 풍경처럼 추억나들이도 '청춘'과 함께 빠르게 달려간다.



북한강 따라 봄바람 라이딩

봄바람 실린 나들이를 위해서는 외곽으로 페달을 밟는다. 북한강변 자전거 길은 '낭만'과 '풍경'이라는 테마가 적절하게 어우러진다. 서울 한강 둔치처럼 프로 라이더들이 고속 질주하는 것도 아니다. 무작정 달리기에는 지나치는 풍광이 탐스럽다. 소양강 치녀상이 들어선 북한강에는 햇빛이 은은하게 부서진다.

소양 2교를 건너면 강원도립화북원, 춘천인형극장 등 소담스런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중도관광지 건너 에니메이션박물관은 가족여행자들에 사랑받는 명소다. 박물관에는 만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안팎에 친절하게 전시돼 있으며 각종 체험거리도 가득하다. 박물관 뒤편으로 의암호를 바라보고 드넓은 잔디밭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다. 박물관에서는 의암면을 경유하는 북한강 자전거길이 빠르게 연결된다. 물길 너머 춘천시내를 바라보며 쾌적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강변 곳곳에는 쉼터와 벤치들이 마련돼 있어 휴식을 돕는다. 강줄기를 바라보며, 또 옛 철로를 추억하며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가 있든다. 폐철로가 남은 강촌행 길목, 김유정역 앞에 들어선 김유정 문학촌은 김유정의 고향이었던 신동면 실례마을에 생가를 복원해 놓았다. 마을 전체가 그의 소설의 배경이었으며 문학촌을 중심으로 실례길도 조성돼 문학기행을 돕는다. 김유정역 옆에는 레일파크가 조성돼 책을 배경으로 한 카페, 강촌까지 오가는 레일바이크로 추억여행을 다독일 수 있다.





독자의 소리

지년 <겨울눈>을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외치기에는 그동안 너무 우리 사회가 폐쇄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호소 이전에 우리 모두가 협심하여 의식구조가 바뀌어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김남일(강원 강릉시)

비긴급 전화상담 콜 센터 110번으로 모든 민원을 더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힘차게 상담해주길 바랍니다.

이승주(서울 중랑구)

메마른 콘크리트 도시에 살고 있는 요즘, 어떻게 하면 낭만적이고 감성적으로 살까 고민을 했는데 작은 실내 정원을 대신해주는 '테라리움'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밀폐형 테라리움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힐링하여 건강하게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양우(경기 김포시)

청탁금지법 관련 기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 가지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는데, 시간대별로 발생 사건을 정리해주셔서 읽기도 편하고 관련 언더뷰까지 작성해주시니 이해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장미향(경남 마산시)

모든 기사가 다 어운이 넘었으나 그중에서도 '종이컵에 담긴 빨간 추억 1인분 떡볶이'를 보니 임용고사를 준비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노랑진 골목길에서 눈물나게 맛있는 간식을 호호 불며 공부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정현준(충남 논산시)



전역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위치한 ○○○○○○○○○○는 반부패 교육을 위한 국제기구다.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 이행과 연구,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자간 공동 사업으로 시작됐다.

(힌트: 38p With ACRC)

지난호 정답	행정심판
정답자	강병득 (부산 부산진구) 노혜미 (경기 용인시) 김혜선 (광주 북구) 이소원 (제주 서귀포시) 이충현 (서울 종로구)
힐링컬러링 당첨자	김*자 <goodto****@nate.com> 김*연 <852****@hanmail.net> 이*배 <bluekey****@gmail.com> 이*영 <cjla****@korea.kr> 장*익 <wik****@naver.com> 김*갑 <kjk****@korea.kr>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혼자서는 풀리지 않던 생각 국민생각함에서 풀었다!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대화·투표·설문을 내 마음대로!
생각이 발전되는 과정을 한 눈에!

국민·전문가·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우리의 생각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자치부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ideapeople.go.kr)은 정책제안부터 설계, 집행, 평가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폴 칠 하는 곳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국민권익

2017 SPRING Vol.52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국민권익> 봄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2017년 봄호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국민권익소식지 혹은 정책홍보 - 국민권익소식지